

## 한일 관계개선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윤 용 탁

(사회교육과)

### I. 서언: 정보화-개방화 사회의 진전과 국제이해교육

교통과 통신의 발달 및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오늘날 지구촌의 세계인들은 많은 접촉(encounting)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물론 이 접촉 기회는 관광, 경제 교류, 학술 활동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국제 사회의 개방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접촉 기회의 확산과 개방화는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 및 정보화 산업의 급속한 확산이 세계인의 생활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거리를 좁혀 놓았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접촉의 기회는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앞으로 더욱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보화와 개방화 과정에서 세계인(개인이나 집단)들 사이의 접촉은 여러 형태의 상호 작용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즉, 때로는 이해 관계가 서로 달라 상대방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려 하는 갈등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동 분화를 통해 일을 분담하기도 하고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 협동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동일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경쟁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국제간의 이해의 증진은 국제 사회에서의 개인적 또는 국가적 문제 해결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제이해는 상호 작용 관련 당사자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그 효율성을 크게 높여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조건으로 주어지고 있다. 더구나, 지금 자라나고 있는 세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국제적인 세계로 변모될 것이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에 교육도 적응해야 한다. 새로운 삶의 조건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이다.

여기서 우리는 국제이해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즉, 상대방과 그가 속한 사회의 정치-경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며, 자신과 국가사회의 국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학습 기능(skills)과 태도(attitudes)를 가지는 국제인을 양성할 수 내용으로 하는 국제이해교육은, 현대 국제 사회에서의 원활한 상호 작용과 “접촉

(encounting)”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이해교육은 인류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이해교육은 앞으로 다가올 지구촌 시대에 대비한 세계 시민 교육적 접근이나 문화적 다원주의에 입각한 복수문화적 접근 등의 발달로 그 필요성이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각 나라의 문화적 독립성을 편견없이 인식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의 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지구 공동의 과제 해결 및 지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이해교육은 본질적으로 자기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를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한국 민족의 문화와 역사가 소중한 만큼 다른 민족의 그것도 소중하다는 의식을 갖게끔 새 세대를 가르치자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저변에는 인류학자들에 의해 수립된 문화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의 전통이 자리잡고 있다. 문화상대주의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문화 체제가 다른 문화 체제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수하거나 열등하다는 식의 평면적 비교를 용인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시각을 바탕으로 우리는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본 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다음의 기본 개념의 설정은 교통과 의사 전달 체제의 발달, 세계 경제 속에서의 협력,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증가된 상호 작용, 범세계적인 기구의 확산과 국제 의식의 제고라는 국제 개방화의 현상적인 특성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 행위자와 사건
- 의사소통
- 가치와 신념
- 상호의존
- 변화
- 문화
- 회소성
- 갈등, 협력, 경쟁

이러한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국제이해교육의 중요 주제로서 많은 사람들은 평화 및 안전의 문제, 환경 문제, 인권 문제, 지역 및 국가간의 공정한 발전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국제이해교육은 이러한 관심 주제들에 대하여 관련된 기본 개념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이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기능 및 태도를 기르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이러한 국제이해

교육은 물론 자신을 국제 사회의 구성원으로 파악하고, 이 바탕위에서 행동함을 기본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이 연구는 먼저 한국에 있어서의 국제이해교육의 전개과정과 현황을 살펴본 후 한국 국제이해교육의 당면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하여 가깝고도 먼나라로 표현되는 일본과의 관계들(예를 들어 교과서 문제, 무역 문제, 기술 이전 문제 등)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이를 살펴보고 끝으로 운명적으로 상호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는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한일 국제이해교육의 지향할 바를 간단히 제시하려 한다.

## II. 한국 국제이해교육의 전개와 최근 동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기본 골격을 가지는 국제이해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전개양상을 지녀왔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가지 종류의 연구 노력을 하여야하겠지만, 여기서는 주로 교육부의 공식화된 사회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해방과 더불어 한국의 사회과 교육은 교수요목기를 제외하고 여섯 차례의 교육과정 개편을 경험하여 왔으며,<sup>1)</sup> 각각의 개편은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그 나름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국제이해교육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사회과는 그 교육목표에 있어, 교육법 제1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 “교육은 홍익 인간의 이념아래… 민주 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와 같이 국제이해교육의 기본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sup>2)</sup> 예를 들어 제1차와 제3, 4, 5, 6차의 사회과 교육과정은 인류복지의 증진과 국제사회발전의 공헌을 사회과 교육목표로 명문화하고 있다.<sup>3)</sup>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제이해교육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그 내용을 체계화한 것은

1) 한국 사회과교육과정 개편의 연대와 내용은 이진석(1992:116-117)과 최병모(1992:165)의 논문을 참조.

2) 한국 교육법 제1조는 “교육은 홍익 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 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는 인간 존중과 인류 복지 실현이 한국 교육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함을 선언한 것으로 국제이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88-7호, 1988. 3. 31)은 “……인류 행복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과의 교과 목표에서도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1992년에 개정되어 고시된 제6차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제3차 교육과정 이후라 할 수 있다. 1973년의 제3차 교육과정 개편에서 사회과는 문화인류학적인 접근을 통한 이질 문화의 이해에 관한 내용을 체계화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있어서 「일반사회」라는 사회과의 대표과목을 「정치·경제」와 「사회·문화」라는 두개의 과목으로 분리하고, 「사회·문화」 과목속에 다른 나라 문화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을 상당한 정도로 포함시켰다. 또한 1974년부터 인구 문제를 학교 교육에 정식으로 도입하기도 하였다. 특히 제5차와 제6차의 사회과 교육과정은 기본 교육 수요의 예측에서, 한국 사회의 국제 교류 증대와 기술 경쟁, 에너지 및 원자재의 국제 의존, 정보화 사회의 진전 등의 이유를 들어 “국제 경쟁과 교류”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강력히 역설하고 있다.<sup>4)</sup>

물론 그 이전에도, 한국의 국제이해교육은 여러 형태로 실시되었다. 예를 들어 유네스코는 1953년에 열린 제7차 총회에서 평화로운 세계 건설을 지향하는 근본적인 시도로서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협동 학교 계획”(Associated Schools Project)을 마련하여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였다. 한국에서도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의 주선으로 1961년 4개 학교가 협동 학교 계획에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1971년의 『UNESCO 국제이해교육 아시아 회의』의 개최 등, 그 이후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관심과 관련 사업이 날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의 국제이해교육은 상당히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하겠다. 또한 한국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이나 일선 교육 현장을 들여다보면, 국제이해교육을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도 조성되어 있지 않음을 곧 발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여러 연구들은 해방 후 국가 건설과 경제 발전의 수행 및 민족 문화의 주체성 확립이라는 국가적 과업들이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중심 주제는 무엇이었는가? 한국의 사회과가 담아온 국제이해교육의 중심 주제는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달리한다. 예를 들어 제2차 교육과정 개편 때에는 1)국가와 국가의 관계, 2)국제 연합과 국제 협력, 3)국제 정세, 4)국제 교류 등이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 그리고 제3차 교육과정 개편에서는 환경 문제와 인구 문제가 추가되었다. 한편 1987년의 제5차 교육과정 개편에서는 국제 정세나 국제 협력의 문제와 함께, 시장경제체제의 우수성이 강조되고 특히 경제적인 측면의 주제들이 크게 부각되었다. 예를 들어 제5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정치·경제」 과목의 「VII 국제 경제와 경제 발전」 단원에서는 국제 경제 사회의 국제 통화 문제, 남북 문제, 신보호주의, 공동 시장·경제 동맹 등 지역적인 경제 통합의 문제를 다루면서 국제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4)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교육부(1988, 1992)의 각급별 사회과교육과정을 참조.

있다. 일면 이는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국제 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른 결과로도 보인다. 이러한 국제 경제 협력에 대한 강조는 6차 교육과정 개편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 이해와 협력의 증진, 국제 경제의 마찰과 협력, 국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 결정 능력에 대한 강조로 구체화되고 있다.<sup>5)</sup>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국제이해교육 중심 주제의 변천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국제이해교육 중심 주제의 변천

교육과정	중심 주제	
제2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와 국가의 관계</li> <li>• 국제 정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연합과 국제 협력</li> <li>• 국제 교류</li> </ul>
제3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안보</li> <li>• 환경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협력</li> <li>• 인구 문제</li> </ul>
제4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정세</li> <li>• 국제 협력의 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협력</li> </ul>
제5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정세</li> <li>• 시장경제체제의 우수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협력</li> </ul>
제6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이해와 협력의 증진</li> <li>• 국제관계의 변화와 한국</li> <li>•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경제의 마찰과 협력</li> </ul>

### III. 한국 국제이해교육의 과제와 한일 관계

언급한 바와 같은 상황에 있는 한국의 국제이해교육은 그 발전을 위해 어떠한 과제를 지니는가? 한국의 국제이해교육이 지니는 발전을 위한 과제를 우리는 교육의 목표와 기본 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사회과 교육 목표의 측면에서 국제이해교육의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국제이해’ 부분을 현상 이해의 한 중요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행 한국의 사회교육

5)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이러한 경향은 아직 그 내용상 확립된 단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근 사회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고급 사고력 (higher order thinking) 을 국제이해교육에 도입하려는 하나의 시도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공민교육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짐) 교과(제5차 교육과정)는 「정치·경제」와 「사회·문화」의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바, 이 두 개의 과목은 어느 것도 과목의 목표에서 전반적인 국제 사회의 현상 이해를 명시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 단지 「정치·경제」 과목의 목표 제2항에서 국제 경제 원리에 대한 이해와 분석 능력 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sup>6)</sup>

이러한 점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의 한국인들이라 하더라도, 아직 민족 주체성의 확립이나 한국 자체에 대한 문제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예를 들어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교육 수요 조사(차경수 외, 1991)는 아직도 한국인들이 민족 주체 의식이나 국가 발전을 국제 관계 이해나 세계 시민 의식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리커트 척도로 민족 주체 의식과 국가 발전은 각각 4.04와 4.02를 얻는데 반해, 국제관계이해나 세계시민의식은 각각 3.96과 3.66을 얻었다. 다시 말해 이는 빠른 속도의 개방화나 정보화사회의 진전을 아직 국민의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교육 내용의 측면에서 국제이해교육의 과제를 언급해 보면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은 「정치·경제」 과목의 3단원, 「국가와 정치」 단원의 5개 주제 가운데 하나로서 「한반도와 국제 관계」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를 취급하기 위한 주요 개념으로 다극화 현상, 국제 사회의 성격, 국제 관계의 특징, 한반도와 동북아의 국제 관계 및 한국의 외교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동 과목의 7단원을 「국제 경제와 경제 발전」이란 제목하에 국제 경제의 원리와 국제 협력의 중요성 인식에 할애함으로써, 개방 경제 사회의 이해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문화」 과목의 3단원, 「문화의 특성과 변동」에서 문화의 속성, 문화의 다양성과 상대성, 문화 상대주의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문화 현상의 이해와 한국 문화의 특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이해교육과 관련된 교육 내용에 대하여 우리는 대체로 두가지의 과제를 언급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국제이해교육의 기본 중요 개념가운데, 한국 사회과의 경우 주로 상호 의존, 문화, 회소성, 협력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대 국제 사회의 양상에 비추어볼 때, 갈등과 경쟁 및 적응과 발전의 인과 관계 등을 포함하는 변화의 개념도 크게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오늘날의 국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위치와 힘, 이해와 경쟁 등에 의한 갈등의 개념이나 진화, 적응, 발전 등의 내용을 포함

6) 정치·경제 과목의 목표 2항에는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비롯하여 국민 경제의 원리 및 우리 나라 경제 발전 과정을 이해하게 하여, 경제 현상에 대한 바른 이해력과 분석 능력 및 판단 능력을 가지게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하는 변화의 개념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오늘날 제기된 "환경 보호에 관한 개발 도상국과 선진국의 생각 차이"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국제이해교육과 관련한 기본 개념의 서술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도 큰 변화없이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그 내용 구성에 있어서 범위(scope)와 계열(sequence)의 고려없이 나열되어 있다. 이는 우리의 사회교육 교육과정에서의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와 연구 실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표 2〉 제6차 교육과정 『사회』 교과와 국제이해교육 관련 내용 체계

학 교	교과	과 목	영 역	내 용
유치원		사회생활	사회현상과 환경	• 다른 나라에 대해 관심 가지기
국민학교	사 회	사 회	인간과 환경	• 지구본과 세계지도 •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의 특색 • 세계 여러 지역의 나라와 우리나라의 특색
			사회·문화	• 문명의 시작과 세계 역사에 영향을 끼친 큰 사건들
			공동생활	• 세계 평화와 국제 협력
중 학교	사 회	사 회	지 리	• 세계의 지리적 환경과 특성
			세 계 사	• 세계의 역사적 발전
			정 치	• 새로운 국제 질서의 변화 • 국제 정치 질서의 이해
			경 제	• 국제 경제 질서의 이해
			사 회	• 국제 사회 속의 한국인
			문 학	• 국제화 시대의 문화 생활 • 문화와 인간 생활
고등학교	사회	공동사회	사 회	• 현대사회의 변동과 특징 • 문화의 다양성과 교류
			지 리	• 국토 통일과 국제화 시대의 한국
		국 사	정치, 사회, 경제, 문화	• 세계사 속의 한국사 • 세계속의 한국

학 교	교과	과 목	영 역	내 용
고등학교	사 회	정 치	국제관계와 한 국 민주정치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사회의 성격</li> <li>• 국제 관계의 변화</li> <li>• 한국의 국제적 위상</li> </ul>
		경 제	현대 국민 경제 의 이해 현대 사회와 경 제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 경제와 국제 무역</li> <li>• 국제 경제와 협력</li> </ul>
		사회·문화	인간과 문화생활 현대사회의 발 전과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의 특성</li> <li>• 미래 사회의 전망과 대응</li> </ul>
		세 계 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로서의 세계사 지향</li> </ul>
		세계지리	세계의 자연 환 경, 인문 환경, 세계 여러 지역 의 생활, 세계의 과제와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과 환경 문제</li> <li>• 경제 수준의 지역차</li> <li>• 지역 간 상화 협력</li> </ul>

자료: 교육부(1992), 유치원 교육과정, 국민학교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I).

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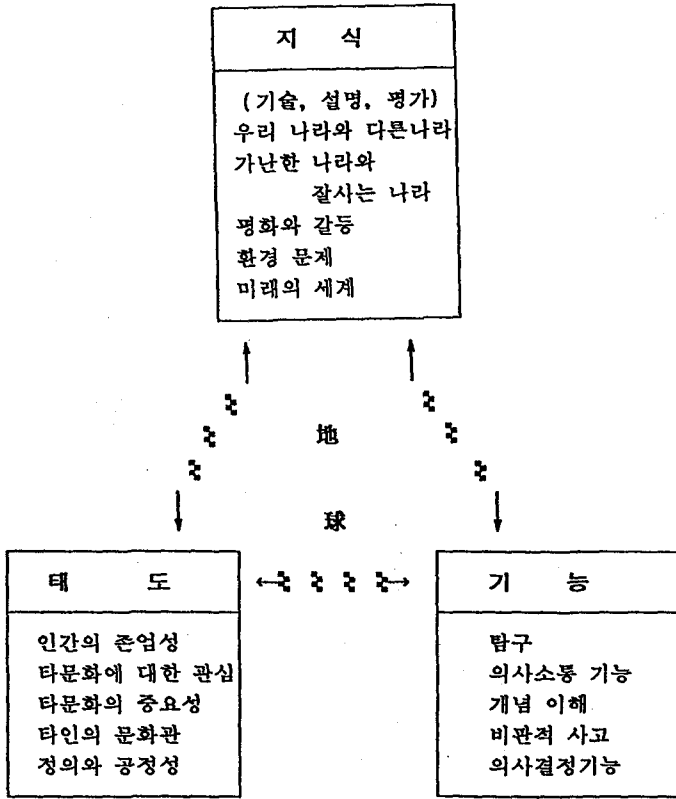
참고로 1996년부터 시행될 제6차 교육과정 「사회」 교과의 국제이해교육 관련 내용을 체계화하여 나타내보면 <표 2>와 같다.

교육 내용과 관련된 또 하나의 과제는 취급되는 내용이 거의 인지적인 영역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국제이해교육과 관련된 사회과의 교육 내용은 국제 사회에 관한 정보를 다룰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영역도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다른 문화나 다른 국가의 가치 체계를 명료화하고 이를 수용하거나 갈등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기능과 태도는 매우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사회과 교육의 목표가 자신이 살고 있는 체제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참여를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기능과 태도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출발하여 국제이해교육의 주요 학습 요소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지식(knowledge)의 영역에서는 어떤 사실을 기술하고(describing), 각각의 사실에 대한 일반





〈그림 1〉 국제이해교육의 주요 학습요소

하나 분석 결과를 비교 설명하고, 그리고 이러한 설명이 구체적인 사건이나 행동에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며,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가난한 나라와 잘사는 나라, 평화와 갈등, 환경 문제, 미래의 세계 등의 국제이해교육과 관련된 지식의 요소를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태도(attitude)의 요소로는 주로 타문화에 대한 이해 및 평가가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하며 인간의 존엄성, 타문화에 대한 관심, 타문화의 중요성, 타인의 문화관, 정의와 공정성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단순히 배타적인 자기민족중심주의를 배격하고 타문화권에 속한 입장에서 그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길러주기 위함이다. 기능(skill)의 측면에서는 탐구나 의사소통 기능을 기저로 하여 비판적 사고나 합리적 의사 결정과 같은 고급 사고력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면 이러한 지식, 태도, 기능의 세가지 범주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제요소는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태도의 요소들은 지식 및 기능의 요소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고, 기능의 요소 또한 태도와 지식의 요소에 의존하게 된다. 어느 범주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며 상호 작용을 하며 교육 실천을 하여 가는 것이다.<sup>7)</sup>

다음으로 우리는 교수-학습의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국제이해교육의 학습 내용은 그 특성 상 다른 영역에 비해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인 경험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다른 사회의 생활 양식을 이해하고 정치-경제 구조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경험적 인지 구조”를 자극하고 이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많은 시청각 학습 자료가 필요할 것이며 컴퓨터 보조 학습 역시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현장 수업에서는 이러한 경험적 인지 구조의 발달을 도울 학습 기제들이 널리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사 자신도 입학 시험과 학습 진도의 문제, 과도한 여타 업무의 문제 등에 의해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교수 활동을 위한 준비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교수 학습 환경의 미비와 학습 자료의 부족은 국제이해교육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 하나 더 지적할 수 있는 과제는 아직 한국의 경우 국제이해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지녀하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합의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국제이해교육은 “다문화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 “개방화 시대의 교육”, “세계 시민 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면서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달리 정의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이해교육이 노출한 한 가지 한계점은 문제(이를 테면, 교과서 문제)를 나라간의 혹은 지역간의 문제로 인식할 뿐, 공동운명체로서의 “지구촌”의 문제로까지 깊이 있게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인식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세계 시민 교육의 이념을 부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968년 미국 우주선 아폴로 호가 보내 온 지구의 사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 운명체로서의 지구촌을 처음으로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탁구공처럼 작은(작아보이는) 지구위에서 온갖 분쟁과 약탈과 파괴가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이라고 하는 가공할 무기는 지구 자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세계속의 한국”, “세계 시민으로서의 나”를 인식해야 한다. 즉, 지구 전체의 문제 가운데서 한국의 존재와 의미와 역할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국제이해교육의 내용이 어느 과목을 중심으로 편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한 방향이 서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국제이해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으로 현행 교육과정(제5차)에서는 국민학교에서는 「사회」 과목, 중학교의 경우 「사회」 과목, 고등

7) 사실 이러한 세가지 측면외에 우리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행동(참여)」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함

학교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사」, 「세계 지리」 등의 과목을 나열할 수 있고, 1996년부터 시행될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과목으로서의 「공통 사회」와 선택 과목으로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사」, 「세계 지리」 등의 과목을 언급할 수 있다. 특히 「공통 사회」는 세계사와 세계 지리를 배경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영역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어 교재의 구체적인 내용 구성이 세인의 커다란 관심사가 되어 있기도 하다.<sup>8)</sup>

이상에서 언급한 여러가지의 과제를 지니는 한국의 국제이해교육은 최근 들어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는 올림픽 이후 한국사회가 급속히 국제 사회에 편입되면서 이기도 하며,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 국제 교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앞에서 언급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상당한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사회와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과 연구 노력이 요청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일본 교과서의 한국 관련 사항에 대한 왜곡 문제, 무역 마찰 문제, 기술 이전과 협력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먼저 한일 양국의 국제이해교육에 있어서 일본 교과서의 한국 관련 사항에 대한 왜곡 문제에 대한 시정 작업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특히, 교과서에 외국과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는 일은 국가간의 상호 이해 및 선린 관계의 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은 이미 1982년 일본 역사 교과서에 서술된 한국 관련 내용의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불편한 관계를 경험한 바 있으며, 당시 우리측이 요구했던 역사적 사실의 왜곡에 대한 시정은 아직도 깨끗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93학년도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

'93학년도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과 관련하여 <표 3>을 살펴보면 일본도서가 발행하는 교과서는 「안중근」을 「조선의 독립운동가 안중근」으로 표현했으며, 교육 출판 및 대일본도서 교과서는 「많은 조선의 여성이 정신대 등의 명목으로 전쟁터에 끌려갔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이처럼 '93학년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교과서에 안중근 의사의 의거 부분이 새로 기술되는 등 한국 관련 왜곡 사실이 시정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한 일 양국의 상호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 하겠다. 한 예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서독이 세계 여러 나라와 교과서 문제를 상호 이해와 협력의 바탕위에서 해결한 것은 일종의 모범 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무역 마찰 문제, 기술 이전과 협력 문제 등의 경제 문제의 급부상도 한일간의 국제이

8) 이와 관련하여서는 교육부(1992)의 『중학교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참고.

〈표 3〉 '93학년도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개정결과

출판사	한국 관련 부분 개정 내용
일본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중근」을 조선의 독립운동가 「안중근」으로</li> <li>• 「의병운동」 표현추가</li> </ul>
동경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병운동」 표현추가, 의병운동의 분포도 및 의병의 사진 게재</li> </ul>
대일본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중근」의 이름을 새로 기술</li> <li>• 「강제연행의 보습」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인 강제연행 기록의 일부 인용</li> <li>• 「조선으로부터는 젊은 여성도 정신대로 강제 동원했다」고 기술</li> <li>• 「근대 일본의 역사가 조선의 식민지화, 군국주의 등 반성해야 할 많은 사실을 가지고 있다」고 기술</li> </ul>
중교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중근」의 이름 기술</li> </ul>
학교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어 강제 사용에 관해 기술</li> </ul>
교육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은 36년간에 걸쳐 조선을 식민지로 무력 점령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고 기술</li> <li>• 「조선의 잔다르크」라며 유관순에 대해 기술</li> </ul>
청수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민화 정책은 조선 교유의 문화나 친족의 유대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일본에 대한 저항을 계속했던 조선 사람들은 깊은 분노를 가졌다」고 기술</li> </ul>
제국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어를 배우는 조선 어린이 사진 게재</li> <li>• 「조선에의 황민화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신사참배·창씨개명에 관해 기술</li> <li>• 「조선인의 학살」이라는 소제목에 관동대지진의 항목에 삽입</li> <li>• 「강제연행된 조선인 중 전후 60만명 정도가 남아 외국인등록 법의 적용에 의해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기술을 강제연행의 부분에 추가</li> </ul>

자료: 중앙일보, 1992.10.9.

해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산업 기술 이전' 과 관련하여 일본측이 제시한 논리를 간단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는 민간 차원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가 나선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기술 이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미흡하며 제시된 방안도 일관성이 없다.

한국 기업이 요구하는 산업 기술은 일본으로서도 개발에 많은 비용이 든 최첨단 기술로 쉽게 내 줄 수 없는 것이며 지적 소유권 미비로 이전을 기피하는 경향을 초래하고 있다.

해외 투자를 고려하는 일본 기업 입장에서 한국과 동남아를 비교할 수 밖에 없는데 첨단 산업 및 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한국의 대내적 환경은 동남아 국가에 비해 미흡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일본

투자 업체의 노사 관계가 식민 통치의 연장선에서 인식되고 있는 인상이다. 기존 투자 업체도 투자를 청산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투자 환경은 정치 환경과 밀접히 연계돼 투자 전망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무역 불균형 개선과 산업 기술 이전은 동시에 해결될 수 없는 과제로, 산업 기술 이전은 결국 기자재나 부품에 연결돼 진행되므로 무역 불균형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다. (중앙일보, 1992년 4월 8일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듯이 한국측의 기대와는 달리 일본측은 한국의 요구가 의례적, 형식적이며 기본적으로 [우리]라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한일 관계의 진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 일 양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역할과 위치 및 지리적 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한일 양국의 상호 국제이해교육은 부단히 연구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IV. 결론: 보다 나은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의 상호 국제이해교육은 부단히 연구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제로 양국민의 정서는 최근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동아일보와 일본의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이 1990년에 각각 행한 의식 조사는, 한국의 경우 일본을 싫어하는 한국인이 1984년의 38.9%, 1988년의 50.6%에서 1990년에는 66.0%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을 싫어하는 일본인이 1984년의 19%, 1988년의 21%에서 1990년에는 23%로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양국의 교류가 계속 확대 일로에 있고, 상호 의존성이 더욱 깊어가는 오늘의 시점에서 이러한 양국민의 부정적인 정서가 깊어지고 있음은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여기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이 단순한 학교 교육의 형식적인 학습 활동으로는 타파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 교육과정(제5차 교육과정)에서도 이미 「정치·경제」 과목 제3단원의 내용 개관에서 “.....또한 전통적인 우호국인 미국과의 바람직한 관계, 역사적으로 불행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의 바람직한 관계 등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적인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아마도 이는 일본이 저지른 역사적인 잘못들(예를 들어, 징용, 정신대, 학살 등)이 밝혀지면서 보편화 되어가는 반일 정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이에 는 이러한 정서가 반영된 일종의 잠재적 교육과정도 커다란 몫을 하였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일간의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기초를 닦는 일이다. 이러한 기초 작업의 첫번째 단계는 양국의 여론주도자(opinion leader)들이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일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한 일 양국 사이의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제안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일 양국 사이의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공동 연구 기구를 설치하는 일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양국 사이의 국제이해교육이 가지는 기본 이념과 방향 및 교육 실천적인 여러 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한 일 양국 사이의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기초 작업들은 상호 공존과 협력 및 국제 사회에서 각자에게 맞는 역할 수행이라는 기본 전제 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전제에 대한 합의와 이웃으로서의 신뢰감 회복에는 한국과 일본의 국제이해교육 관련 연구 단체(예를 들어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일본 공민교육학회 등)간의 실천적인 노력이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sup>9)</sup>

#### 참 고 문 헌

- 교육부(1988), 『제5차 교육과정-고등학교 교육과정』.
- 교육부(1992), 『제6차 교육과정-유치원 교육과정』.
- 교육부(1992), 『제6차 교육과정-국민학교 교육과정』.
- 교육부(1992), 『제6차 교육과정-중학교 교육과정』.
- 교육부(1992), 『제6차 교육과정-고등학교 교육과정(I)』.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68), 『우리나라의 국제이해교육활동』.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82), 『국제화시대의 한국의 국제이해교육』.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86), 『국제이해교육 연구활동 추진계획』.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88), 『국제이해교육의 길잡이』, 서울: 구미무역 출판사.
- 윤용탁(1982), 『사회과교육론』, 교육부 학술연구보고서.
- 이진석(1992), “한국사회과의 성립과정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와 한국사회과교육학회는 일본공민교육학회와 더불어 1991년에는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1992년에는 일본의 東京學藝大學과 お茶の水女子大學에서 한일 공동 심포지엄을 한 바 있다.

- 조영달(1992),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에 관한 연구: 보통시민교육적 관점을 중심으로,” 민주 문화논총.
- 조영달(1992), “학급문화의 중심으로서의 수업문화,” 한국청소년연구 제8호, 한국청소년개발원.
- 차경수 외(1991), “교육과정개선을 위한 국가 사회의 요구 및 전망 조사연구,” 교육부 학술 연구보고서.
- 최병모(1992), “사회과교육과정 개발의 체제적 접근,” 한국교원대학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1985), 한·일 양국간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개선방안, 교과서 국제비교연구실.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일본공민교육학회, 국립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1991), “한국과 일본의 사회과(공민) 교육,” 한일 사회과교육 Symposium.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일본공민교육학회, 국립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1992), “한 일의 국제이해교육의 현상과 과제,” 제2차 한일 사회과교육 Symposium.
- 한국사회과교육회(1982), “사회과에서의 국제이해교육,” 사회과교육제15집. 日淵五十生(1986), “한 일 상호이해교육을 위하여”, 한 일 교육관계자 학술회의, 한국교육개발원.
- 日本公民教育學會編(1992), 公民教育の理論と實際, 東京: 第一學習社.
- 日本社會科教育學會編(1984), 社會科における 公民的資質の形成, 東京: 東洋館出版社.
- 藤井 均, 三浦軍三 編(1990), 人物を生かした歴史學習, 東京: 東洋館出版社.
- 三浦軍三 編(1990), 新しい社會科の觀點と授業, 千葉: 梓出版社.
- Anderson, L. (1979), *Schooling for Citizenship in a Global Age: An Exploration of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Global Education*, Bloomington, In: Social Studies Development Center.
- Alger, C.F.(1974), *Your City in the World/The World in Your City*, Columbus:Merton Center, The Ohio State University.
- Becker, J.M. (ed.) (1979), *Schooling for a Global Age*, New York : Mcgraw-Hill.
- Becker, J. & Merryfield, M.(1982), *Improving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 Study of Six Projects in the Midwest*, Bloomington, In: Social Studies Development Center.
- Cortes, C.E. & D.B. Fleming(1986), “Changing Global Perspective in Textbooks,” *Social Education*, 50, 5.
- Hanvey, R.(1976), *An Attainable Global Perspective*, Denver:Center for Teaching International

Relations.

- Kazuko Ostu (1992),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Unpublished paper
- Kniep, W.M. (1986), "Defining A Global Education by Its Content," *Social Education*, 50, 5, 437-466.
- Merry M. Merryfield (1992), "Preparing Social Studies Teacher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20, 1, 17-46.
- NCSS (1981), *Mutual Understanding, Japan/U.S. Textbooks Study Project (Joint Report)*.
- Rogers, E. (1962), *Diffusion of Innovation*, Glencoe, IL: Free Press.
- Tye Kenneth A. (ed.) (1990), *Global Education from Thought to Action*, Alexandria, VA:ASCD.
- UNESCO (1974), *Recoma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at Its Eighteenth Session, Paris, 19 November.
- UNESCO (1983), *Final Repor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ith a View to Developing a Climate of Opinion Favorable to the Strengthening of Security and Disarmament, Paris, 12-20 April.
- UNESCO (1987), *Records of General Conference the Twenty-Fourth Session*, Paris, 20 October to 20 November.



**Abstract**

A Study on the Tasks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to Promote Korea-Japan Relations

Yong Tak Yoon

Department of Social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ask of international understanding between Korea and Japan. For this purpose, an analysis is made of the following aspects of the curriculum of social education, objectives, contents; learning and instruc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In terms of objectives, an approach to th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s needed to lay emphasis on phenomenological understanding. Current social education in Korea (equivalent to the civic in Japan) is divided into "Sociology and Anthropology" and "Politics and Economics", but an explicit manifestation of subject-objectives of international understanding has not been observed. Instead, we can only find the reference to "the ability of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the principle of politico-economic phenomena".

(2) In terms of contents, more emphasis is put on the concept of change and the affective domain. Existing concepts like interdependence, culture, scarcity, cooperation seem to be inappropriate for understanding of current international community. So, we must add the change-relevant concepts such as international power and states conflict, evolution, adaptation, growth in future curriculum of social education. And those existing contents of social education are much oriented in cognitive domain. From our point of view, skill and attitude as a tool for clarifying the value system of other countries and accepting and overcoming the conflict between them should be given more attention.

(3) In terms of learning and instruction, the improvement on the environment about them and the use of teaching materials are needed for motivating an empirical cognitive structure.

(4) In addition, we should arrive at an agreement in defi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This field is called either multicultural education, or education in open-era 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e variety in terminology of international understanding shows that there is a coherent scope and sequence i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n addition, International understanding would make a large contribution not only toward establishment of friend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nd a cooperative institute but also making for make social atmosphere.